

안철수, 후보 단일화 때가 되면...

민주 ‘정치개혁’ 의지 표명 속 “상황에 따라...” 첫 의중 밝혀

송호창 선대본부장

“후보 등록때까지

문-안 힘 합쳐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새로운정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친노(親盧·친노무현) 참모 사퇴 등으로 단일화 논의의 운을 띄우기에 애쓰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9일 대선 완주 의지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중을 직접 밝혀 주목을 끌었다.

문 후보는 이날 정치채신 분야를 담당할 새로운정치위원회(새정치위) 위원 1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아직까지 마땅한 인사를 찾지 못해 일단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새정치위에는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장을 포함한 16명의 전문가와 국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양병기 정주대 교수가 고문을 맡고,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간사로서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안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 내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대선 완주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끝까지 가야죠”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평창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끝까지”라는 것이 단일화를 포함한 것이냐”는 질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원로교수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황뉴스

에 “만약에 국민이 원해 단일화 과정이 생긴다면 거기서도 이겨서 끝까지 갈 것”이라며 “아니면, 아닌 대로”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동안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9월25일), “앞으로 두 달은 더 기대해도 좋다”(10월18일) 등의 발언을 통해 대선 완주 의지를 여러번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의중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출마선언에서 ‘정치권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 정도면 정치쇄신이 됐다. 또는 확실히 될 것 같다는 희망을 다 포함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쇄신이 단일화의 조건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도 이날 KBS 1TV ‘일요일전’에 출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11월말 대선후보 등록을 할 때까지 두 후보가 힘을 합치는 것이 과제”라며 “그렇게 힘을 합치게 된다면 지금의 ‘무소속이나, 정당후보나’는 전혀 의미 없는 논쟁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과 야권 전체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이분의 여지가 없다”며 “그런 점에서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의중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본부장은 그러나 “그냥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힘을 강화시켜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받는 속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의 리더십과 정책, 국정 운영 철학을 충분히 보여주는 가운데

서 자연스럽게 (단일화) 절차와 과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발언은 문-안 후보가 독자 행보를 통해 자질과 역량을 강화해 지지세력을 확장한 뒤 내달 25~26일인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안 후보 캠프의 김성식 공동 선대본부장은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후보 간 비전과 리더십을 비교·분석할 기회를 갖도록 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3자 TV 국민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 후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박 후보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대선까지 완주하겠다고 선언한다면 토론에 응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비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정수장학회 발언 관련 야권 대선주자들 반박

문 “강탈사실 왜곡” 안 “역사인식 부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이 “사실 왜곡” “역사인식 부재”라고 반박하면서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 헌납 과정과 강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에 대해 “몇가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해명을 시도했다.

하지만 부일장학회가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바뀌는 과정과 관련한 그간 야당의 주장을 대선을 앞둔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강압성’ 부분과 관련한 발언을 번복하면서 “강탈 사실을 왜곡했다”는 야권의 반발을 샀다.

박 후보는 이날 정수장학회가 야당의 주장처럼 박정희 정권의 일방적 강탈에 의해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

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당시 김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였다”며 “4·19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그후 5·16때 부패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장학회 헌납의 강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번복,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씨는 1962년 재산해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 과정에서 문화방송과 부산일보의 주식 등을 국가에 헌납한 뒤 석방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김씨의 유족이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

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강탈을 인정한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강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원이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정수장학회 헌납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처럼 해석되자 기자회견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정정했다. 당내에서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두 개의 판결’ 때처럼 박 후보가 이번에도 법원의 판결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에 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근혜·문재인 이번주 광주·전남 온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이번 주에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박 후보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등 대통합을 들르는데 이어 전북까지 방문할 계

획”이라며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박 후보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등 대통합을 들르는데 이어 전북까지 방문할 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25일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이날 방문을 통해 광주의 선택이 대선 판세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25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며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도의원 3명·기초의원 12명 안지지

전남도의회 김옥귀(나주·이하 무소속), 양경수(화순), 구복규(화순) 의원과 나주시의회, 화순군의회 등 기초의원 12명이 22일 전남도의회에서 ‘안철수 지지’ 기자회견을 연다. 지역 도의원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적인 안철수 지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시·군의원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어 지역 정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한 도의원은 “친노는 전남을 위해 한 일이 없고, 대북송금 특검 등 호남 정치를 말살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 동구·서구를 선거사무소 개소

민주통합당의 광주지역 사교 지역구인 동구, 서구를 정당선거사무소가 2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8대 대통령선거 필승을 위해서 는 원의 지역인 동구와 서구를 조직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다른 지역위원회보다 앞서 이날 개소식을 가졌다.

동구 선거사무소는 김영우 광주시의원, 채명희 동구의회 의장, 조수용 전 동구의장, 조자봉 전 조선대 학생회장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출범했으며, 서구를 선거사무소는 김영남·정병문 광주시의원, 주경남 서구의원, 주병진 시당 노인위원장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출범했다.

진보정당 시당 창당 공동위원장 선출

진보정의당 광주시당 창당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6일 추진위를 결성하고 장화동 전 광주시 민선더 대표와 김상호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강은미 광주시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진위는 지역의 노동계와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15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대선 이후 창당을 계획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친노그룹 9명 일괄 퇴진

전해철·이호철 등... ‘전략적 후퇴’ 지지도

“정권교체 용광로” 안에서 혼연일체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후보의 선대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으나 친노 세력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는 등 2선 퇴진의 압박을 강하게 받아왔다.

특히, 일부 친노 인사들에 대한 호남 민심의 비판적인 시각은 문 후보의 지지를 확산에 걸림돌이라는 지적

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친노 핵심 그룹이 백의종군을 선택했지만 막후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 후보와 친노 그룹의 절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임명직을 맡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권재창출이 이뤄질 경우, 재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친노 그룹이 선대위에서 퇴진함에 따라, 당내 쇄신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도부 퇴진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당내 비주류에서는 친노 핵심 그룹의 사퇴를 계기로 지도부의 ‘2선 후퇴론’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의 사퇴를 통해 당내 쇄신과 정치 혁신의 판을 키워나가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정권 창출을 이룬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매투자

▶경매 배우면서 투자할 분
▶NPL /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교육 / 임장 활동비 등 550만원
▶배우면서 단독 / 공동 투자 가능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화순도곡(온천,모텔) 대3234㎡, 214280㎡ 감정가 42억9천 최저가 9억7천	화정동(예식장) 대1094㎡, 214489㎡ 감정가 41억9천 최저가 21억2천	두암동(목욕탕) 대570㎡, 211256㎡ 감정가 12억8천 최저가 5억3천	소태동(독서실) 대561㎡, 21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8억7천	생촌동(원룸) 대294㎡, 21494㎡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3억7천	화순도곡무민텔 대1904㎡, 26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월계동(근린시설) 대446㎡, 21269㎡ 감정가 6억3천 최저가 4억4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금동(목욕탕) ☜ ▷대지 91평 ▷건물 303평 ▷감정가 10억 ▷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		☞ 군산(바이오에너지공장) ☜ ▷대지 3025평 ▷건물597평 ▷감정가 99억4천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 담양금성(공장) ☜ ▷대지 1482평 ▷건물 299평 ▷감정가 7억1600만 ▷매매가 5억(협의후결정)			
☞ 용봉동(하미스포레스) ☜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 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32억5천 (협의후결정)		☞ 화정동 (예식장) ☜ ▷대지 330평 ▷건물 1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5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소재지 생원동 대3238, 213090 화정동 대1094, 214489 대촌동 대230, 21716 두암동 대570, 211256 수원동 대651, 212386 신안동 대4706, 211123 목포동 대1786, 21408 보성읍 대685, 21763 전북김제 대8076, 215004 전주진신 대665, 21988	대지/건물 72억 25억 3층나이트 41억5천 17억 8층예식장 7억4천 5억2천 5층근린 12억9천 5억2천 4층원룸 13억9천 5억7천 4층상가 18억2천 12억7천 2층상가 4억8천 2억1천 단층수원원 7억2천 1억8천 2층상가 25억 10억 2층물류창고 11억4천 5억8천 2층나이트	대지/건물 신안동 대372, 211198 신안동 대227, 211004 순천동 대330, 21951 대촌동 대36, 21207 나주동 대46, 2148 신안동 대353, 211314 화순도곡 대11904, 212628 화순도곡 대11905, 212628 대촌동 대204, 21883 영암배산 대4599, 21704	대지/건물 12억2천 4억3천 5층숙박 7억5천 3억3천 5층리빙텔 6억8천 2억2천 4층도넛 4억7천 1억9천 3층일부 1억8천 8천 1층일부 13억 5억8천 5층도넛 26억 18억 4층무인텔 26억 18억 4층무인텔 5억1천 2억1천 5층도넛 5억5천 2억 3층도넛	소재지 나주배산 대7898, 212857 광양읍 대6611, 212902 담양서면 대10991, 212002 해남배산 대20845, 212386 나주동 대3858, 212053 무안봉곡 대11028, 212868 함평학교 대3102, 211656 나주공산 대29710, 211826 영광농성 대85512, 214298 완도읍 대4447, 212612	대지/건물 16억 4억6천 단층공장 24억2천 17억3천 단층공장 8억2천 5억7천 2층공장 10억 1억9천 단층공장 15억 8억7천 2층공장 49억 17억7천 9층공장 13억5천 6억4백 단층공장 17억3천 11억 3층공장 68억4천 22억4천 3층공장 10억 4억5천 단층공장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입한 부실자산(NPL)을 유동화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 공장, 예식장, 빌딩, 토지, 호텔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							